**Musical CHICAGO is all over the World! **

**2017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내한 공연**

**▶ 20여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고 현재까지도 활발히 공연 중인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하고 있는 미국 뮤지컬’.**

**▶ 오리지널 배우들이 선사하는 뮤지컬 <시카고> 앵콜 공연!**

**▶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얼어붙은 공연시장도 녹여버린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내한 공연. 그 주역들이 다시 온다!**

**▶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를 비롯한 주요 배역 모두 단일 캐스팅! 밀도 높고 짜임새 있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100년 전 이야기 - 감각적인 캐릭터, 시선을 사로 잡는 스토리, 그리고 헤드라인 급 범죄.**

**ENCORE! Original Musical CHICAGO Rocks KOREA!**

**메르스 공포도 잠재운 오리지널 팀의 위력! 뮤지컬 <시카고>!**

2015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이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다시 한번 내한 공연을 갖는다. (3월 2일부터 1차 티켓 오픈)

2015년 당시 대한민국 공연 시장은 메르스 공포로 잔뜩 움츠려 있었다. 하지만 수준 높은 오리지널 팀이 선사하는 정통 뮤지컬 <시카고>는 떠들썩했던 메르스의 공포를 잠재우며,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막강한 위력을 선보였다. 그 결과, 객석점유율 85%를 기록, 공연 중반 이후부터는 1,600석 국립극장의 전 좌석을 연일 매진시켰다.

팔등신 배우들이 선보이는 섹시하고 뜨거운 오리지널 팀의 무대는 한국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고, 총 61회 공연 만에 약 8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WELCOME BACK! Brilliant Original Cast of 2015 CHICAGO Returns!**

**2015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주역들이 다시 돌아온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하는 이유가 있다!’, ‘끝나는 순간까지 박수를 멈출 수 없는 최고의 뮤지컬!’, ‘본 오리지널 공연 중 베스트!’ 등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졌던 2015년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공연. 그 영광의 주역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는다.

팜므파탈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한 벨마 켈리 역의 TERRA C. MACLEOD, 섹시함과 사랑스러움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록시 하트 역의 DYLIS CROMAN, 묵직한 존재감으로 무대를 지키는 베테랑 배우, 마마 모튼 역의 ROZ RYAN 그리고 압도적인 에너지로 미국 뮤지컬의 자존심을 지킨 16명의 앙상블들과 14인조 빅밴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또한, 벨마 켈리, 록시 하트, 마마 모튼, 빌리 플린 등 주요 배역 모두가 오직 단일 캐스트로 구성되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최고 기량을 지닌 오리지널 팀 배우들의 밀도 높고 짜임새 있는 뮤지컬 <시카고>의 진정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WORLD STEADY SELLER: Musical CHICAGO!**

**전 세계가 사랑한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는 1975년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인 밥 파시(Bob Fosse)에 의해 처음 무대화 된 이후, 1996년 연출가 월터 바비(Walter Bobbie)와 안무가 앤 레인킹(Ann Reinking)에 의해 리바이벌되었다. 이 작품은 20여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고, 현재까지도 활발히 공연 중에 있는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롱런하고 있는 미국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뮤지컬 <시카고>는 Tony, Drama Desk, Grammy, Oliver Awards 등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55개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뮤지컬 <시카고>는 미국 브로드웨이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브라질, 스웨덴,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등 전 세계 35개국에서 29,000회 이상 공연 되었고, 3,000만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며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 하였다.

**공연 개요**

* **공연기간:** 2017년 5월 27일(토) – 7월 23일(일)
*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공연시간:** 평일 8시 / 주말, 공휴일 2시, 6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 **티켓가격:** VIP 14만원 / R석, OP석 12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관람가 (고등학생 이상 권장)
* **공연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신시컴퍼니 www.iseensee.com

**목 차**

1. **뮤지컬 <시카고>는 어떤 작품인가**
2. 전 세계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의 명작 <시카고>
3. 성공하는 뮤지컬의 일반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은 컨셉 뮤지컬

* 화려한 관능의 몸짓 속에 숨겨진 통렬한 사회 풍자
* 192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표현 방식
* 활력 있고 감미로운 재즈의 향연
* 밥 파시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는 안무

1. **HISTORY OF MUSICAL <CHICAGO>**
2. 미국 공연 역사
3. 한국 공연 역사
4. **배우 프로필**
5. **시놉시스**
6. **뮤지컬 <시카고>는 어떤 작품인가**
7. **전 세계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대의 명작 <시카고>**

***1920년대 미국 이야기, 하지만 모든 시대를 초월하며 명작의 반열에 오르다.***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의 근원을 따지려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이자 희곡작가였던 모린 달라스 왓킨스(Maurine Dallas Watkins)이 1926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쿡 카운티(Cook County)의 공판에서 영감을 받아 쓴 연극 <시카고 (원제: A Brave Little Woman)>가 그것이다. 이 작품의 열광적인 호평이 바탕이 되어 1927년 무성영화 <시카고>와 1942년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록시 하트(Roxie Hart)>가 연이어 제작되면서 빅히트를 쳤다. 왓킨스의 원작은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풍자와 위트를 지닌 <시카고>는 언론과 사회의 속성에 대한 예지적인 시선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존 캔더(John Kander)와 프레드 엡(Fred Ebb)***

***그리고 밥 파시(Bob Fosse)가 만든 뮤지컬 <시카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였던 밥 파시(Bob Fosse) 또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다. 1975년 그는 존 캔더(John Kander)와 프레드 엡(Fred Ebb)과 함께 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 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발달하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대중적 테마를 결합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를 만들어내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위트 있는 가사와 재즈 특유의 농익음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멜로디, 그리고 밥 파시(Bob Fosse)만이 표현할 수 있는 관능미 넘치는 안무는 뮤지컬 <시카고>의 진가를 확인시켜주며 대성공으로 이어졌고, 70년대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컬로 손꼽히게 되었다.

***음악과 안무 시그니처 스타일을 고수하며 리바이벌 된 뮤지컬 <시카고>,***

***미국 브로드웨이를 넘어 전세계를 강타하다.***

뮤지컬 <시카고>의 생명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6년 연출가 월터 바비(Walter Bobbie)는 밥 파시(Bob Fosse)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계에 기여했던 공헌뿐 아니라 예술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간 인생 전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 그는 재능 있는 안무가 앤 레인킹(Ann Reinking)과 함께 뮤지컬 <시카고>의 리바이벌 공연을 계획한다.

1996년 11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조명, 무대장치 등을 재정비한 뮤지컬 <시카고>는 리처드 로저스 극장(Richard Rodgers Theater)에서 재공연되었다. 당시, 공연은 파시의 작품 같았지만 1975년도의 무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일보한 작품으로 평가 받으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계에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이듬해에는 초연 당시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코러스라인>에게 넘겨줘야만 했던 ‘토니 상(Tony Awards)’ 중 리바이벌 뮤지컬상, 연출상 등 6개 부문이나 휩쓰는 기염을 토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성공은 곧바로 웨스트엔드로 이 작품을 진출시켰다. 1997년부터 웨스트엔드 아델피 극장(Adelphi Theatre)에서 공연된 뮤지컬 <시카고>는 영국의 대표적 공연물에 수여하는 상인 ‘올리비에 상(Olivier Awards)’ 베스트 뮤지컬 제작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하며, 까다로운 영국 공연 계에서 롱런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뮤지컬 <시카고>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연이은 성공은 세계 각지로 이어져 한국을 비롯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브라질,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등 35개 국가, 474개 도시에서 29,000회 이상 공연되며 3,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으며 공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시카고> 브로드웨이 공연은 현재까지 8,500회를 넘어섰고, 이는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가장 롱런하고 있는 미국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1. **성공하는 뮤지컬의 일반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은 컨셉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는 정상적인 기승전결의 플롯 구조를 갖추기 보다는 아주 비사실적이고 양식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부각시키고, 이야기 전개보다 표현 방식을 부각시키는 컨셉 뮤지컬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뮤지컬 <시카고>가 다른 공연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또한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벨마(Velma)라는 극 중 인물이 사회자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관객들의 몰입을 제한하고 마치 브레히트 연극처럼 ‘이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라고 설명하며 주제를 부각시키는 서사극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1920년대 시대를 대표하는 보드빌(Vaudeville) 형식의 무대와 재즈 풍의 음악이 밥 파시의 안무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뮤지컬 <시카고>만의 독특한 형식이 완성되었다.

* **화려한 관능의 몸짓 속에 숨겨진 통렬한 사회 풍자**

파시, 캔더, 엡 등 뮤지컬영화 <캬바레 (Cabaret)>에 참여했던 '캬바레 팀'이 다시 뭉쳐 만든 뮤지컬 <시카고>는 뮤지컬 <캬바레>를 통해 보여줬던 통렬한 사회비판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살인, 욕망, 부패, 폭력, 착취, 간통, 배신'이라는 선전문구처럼 뮤지컬 <시카고>에는 1920년대 당시 미국 사회의 치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과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른바 '1전 신문(penny paper)'이라 불리며 당시의 언론을 주도하던 극도로 선정주의적이면서도 통속적인 싸구려 저널리즘에 대한 시니컬한 묘사와 풍자, 그리고 O.J.심슨 사건에서도 우리가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던 미 형법 제도의 모순을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또한 남성 중심의 도덕관과 황금만능주의, 진실보다는 포장을 중시하는 외형주의의 편향된 시각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 **192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표현 방식**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던 1920년대 시카고. 거리엔 환락이 넘쳐나고, 마피아가 지하 세계의 돈으로 도시를 장악했던 시절, 살인을 저지르고도 스타가 되길 꿈꾸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 당시에는 있을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위트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시가, 권총, 살인, 갱, 무법천지, 보드빌, 재즈, 애교 가득한 여성 등 1920년대 시카고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뮤지컬 <시카고>에는 가득하다. 이처럼 뮤지컬 <시카고>는 시종일관 어두웠던 1920년대 미국의 현실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주제나 음악, 춤, 세트, 의상, 조명 등의 표현방법은 현재 우리 한국의 이야기, 전 세계의 이야기로 해석해도 좋을 만큼 시사적이고 현대적이다.

뮤지컬 <시카고>는 등장인물들이 관객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는 등 서사극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면서, 여타 뮤지컬에서 보이는 치장이 많고 화려한 사실적인 세트가 아닌 단순한 세트와 강렬한 조명 만으로 움직이는 연기자들의 춤, 연기와 드라마에 자연히 눈과 귀를 모으게 하는 특별한 컨셉 뮤지컬 형식을 취한다. 군더더기 없는 무대 위에서 흐느끼는 듯 절규하는 재즈가 흐르고,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의 관능적인 춤이 무대를 채워나가면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코믹하게 야유하고 조롱하며 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드라마를 펼쳐 보인다.

* **활력 있고 감미로운 재즈의 향연**

작품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에서 보여주듯 뮤지컬 <시카고>의 음악은 재즈 풍이 지배적이다. 작품의 배경이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클럽이고 그 시대 시카고의 소위 ‘대중가요’가 바로 그런 클럽에서 연주되었던 재즈였기 때문이다. 14인조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 <시카고>의 밴드는 튜바, 트럼펫 등의 미국적인 사운드를 표현하는 악기들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공연과는 달리 무대 정 중앙 계단 형 피트에 위치하여, 제 2의 배우로서 극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지휘자가 익살맞게 배우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과 막간에 연주되는 신나는 밴드의 애드립은 뮤지컬 <시카고>만의 특별한 즐거움이다.

* **밥 파시(Bob Fosse)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나는 안무**

뮤지컬 <시카고>는 밥 파시(Bob Fosse)에 의해 탄생하였고 그의 독특한 안무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밥 파시(Bob Fosse) 안무의 특이한 점은 그가 자신의 결점으로부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해 내었다는 점이다. 안짱다리로 발을 바깥쪽으로 턴 아웃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그는 오히려 결점을 이용하여 크고 시원시원한 동작들보다는 꾸부정하면서도 소소한 근육들의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 이처럼 밥 파시(Bob Fosse)의 춤은 심플하면서 드라마틱하고 섹슈얼리티한 안무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앤 레인킹(Ann Reinking)이 1996년 재현한 뮤지컬 <시카고 > 중 벨마와 록시가 클라이막스에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인 ‘Hot Honey Rag’는 밥 파시(Bob Fosse)의 1975년 초연의 안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더욱 눈 여겨 볼 만 하다.

그 외에도 심플하고 섹시한 의상을 입은 여배우들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를 적나라게 드러내는 섹시한 남자 배우들이 보여주는 밥 파시(Bob Fosse)의 절도 있고 관능적인 춤은 뮤지컬 <시카고>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1. **HISTORY OF MUSICAL <CHICAGO>**
2. **미국 공연 역사**

**· 1996년** 11월 14일 브로드웨이 리바이벌

**· 1997년** 6월 1일 토니상 6개 부문 수상 – 베스트 리바이벌 뮤지컬 상,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 연출상, 안무상, 조명상

**· 1997년** 11월 18일 웨스트엔드 리바이벌 공연

**· 1998년** 2월 15일 올리비에 상 2개 부문 수상– 최우수 뮤지컬상, 여우주연상

**· 1998년** 2월 25일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 수상

**· 2002년** 12월 27일 영화 <시카고> 개봉

**· 2014년** 11월 뮤지컬 <캣츠>를 제치고 브로드웨이에서 2번재 롱런 공연으로 등극

**· 2016년** 11월 뮤지컬 <시카고> 브로드웨이 공연 20주년

1. **한국 공연 역사**

* **2000년 & 2001년 세종문화회관 - 3800석의 ‘전석 매진의 신화’**

인순이, 허준호, 최정원, 전수경, 김진태, 윤희정(재즈가수)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뮤지컬 <시카고> 한국 초연은 국내외 재즈연주자들의 정통 연주와, 밥 파시의 파격적인 안무로 호평 받으며 공연되었다.

* **2003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팀 내한 공연**

영국 웨스트엔드 공연팀의 내한 공연으로 밥 파시 뮤지컬의 진수를 선보였다. 밥 파시의 절묘하면서도 고난이도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출중한 배우들은 드라마보다 양식적 방법에 의해 주제를 부각시키는 컨셉 뮤지컬의 절정인 <시카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 **2007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화려한 한국 캐스팅으로 부활하다!**

최정원, 배해선, 성기윤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와 ‘아이다’로 성공적인 공연을 치른 옥주현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파 배우들은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스태프에게 직접 수련 받으며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무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공연을 선보였다. 2주의 짧은 기간과 추석 연휴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3000석에 가까운 객석을 매울 가득 채웠고 객석점유율 80%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 **2008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2008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고 흥행작**

07년 뜨겁게 무대를 달구었던 배우와 스태프가 다시 뭉치고, 최고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빌리’역으로, 극단 시키의 수석배우로 활동했던 김지현이 ‘벨마’역으로 합류하였다. 두 달 가까운 공연기간 동안 객석점유율 86%를 기록하며 뮤지컬 <시카고>의 흥행신화를 이어갔다.

* **2009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우리시대 최고의 디바 인순이 합류**

2009년 뮤지컬 <시카고> 공연에는 초연 당시 폭발적인 가창력과 관객을 흡수하는 강한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였던 인순이가 ‘벨마’로, 깊이 있는 연기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영화와 뮤지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준호가 ‘빌리’로 9년 만에 이 작품에 합류했다. 원년멤버 복귀는 뮤지컬 <시카고>에 신선함을 더했고 더불어 2007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스태프들로부터 전수받은 최정원, 옥주현, 배해선은 더욱 물오른 연기로 중심을 잡으며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주며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

* **2010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뜨거운 열정으로 공연 비수기를 녹이다.**

2010년 뮤지컬 <시카고>는 우리시대 최고의 디바 인순이, 옥주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배우 최정원, 남경주를 비롯 2007년 공연부터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앙상블이 함께하며 더욱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2010 성남 공연의 최종 드레스 리허설의 모든 좌석을 1만원에 판매한 수익금과 아름다운 재단과 성남아트센터가 함께한 바자회 및 경매를 통해 모금된 16,589,399원을 ‘한 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확보 지원사업’에 기부하는 등 관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따듯한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뜨겁게 시작한 2010년 뮤지컬 <시카고> 공연은 공연 최대 비수기인 1,2월을 뜨겁게 녹이며 공연되었다.

* **2012년 디큐브아트센터 - 뮤지컬 배우들로 성공신화를 이어간 저력의 작품**

2012년 6월 9일부터 시작된 뮤지컬 <시카고>는 4개월간 총 140회 공연 동안 83%를 기록하였다. 뮤지컬 <시카고>의 흥행은 아이돌 가수나 유명 젊은 남자배우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 있는 배우들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관객들의 지지를 받으며 작품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국내 초연된 대작 <위키드> 와 <라카지> 그리고 뮤지컬 매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맨 오브 라만차>와 <모차르트> 등과 경쟁하면서 4개월 간 상위권에 머물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 **2013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최정예 멤버들이 뭉쳐 무대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다.**

2000년 초연부터 뮤지컬 <시카고>와 함께한 인순이, 최정원, 성기윤은 물론 김경선, 김준태, 최성대, 차정현, 서만석, 민세희, 최은주, 이동재, 전호준, 강동주 등 수년간 이 작품을 함께한 베테랑 배우들과 더불어 새로운 록시 이하늬와 오진영이 합류하여 신선함과 완성도를 동시에 선사하며 뮤지컬 <시카고> 흥행신화를 이어갔다.

* **2014년 디큐브아트센터 – 한국 공연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기록하다.**

뮤지컬 <시카고> 초연부터 지금까지 한 시즌도 빠지지 않고 매 공연마다 더 멋진 모습을 선보인최정원이 ‘벨마’에, 2012년 뮤지컬 <시카고>로 한국뮤지컬대상 여우 신인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후, 2년 만에 컴백한 아이비가 ‘록시’에 원캐스팅 되어 최고의 콤비를 이루며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다. 수년간 이 작품을 함께하였던 베테랑 앙상블 배우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이종혁과 전수경이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내며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 뮤지컬 <시카고> 한국 공연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기록했다.

* **2015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오리지널 배우들이 선사하는 정통 <시카고>의 무대**

뮤지컬 <시카고>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배우들이 세계 정상 기량으로 대한민국을 찾았다. 오리지널 배우들은 1920년 보드빌 무대를 그대로 살린 스타일리쉬한 무대에서 14인조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브로드웨이 특유의 관록 넘치는 정통 <시카고>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대한민국 공연계에 큰 타격을 입혔던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공연 후반부에는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 **2015년 디큐브아트센터 – 2014 영광의 주인공들, 또 다시 쌓아 올린 새로운 기록**

한국 공연 역사상 최고 시즌을 보낸 2014년 영광의 주인공들이 또 다시 뭉쳤다. 2015년 역시, ‘벨마’ 역에 최정원, ‘록시’ 역에는 아이비가 단일 캐스팅되어, 99회 공연을 훌륭하게 완주하였다. 이 두 여배우를 필두로 만들어진 완벽한 무대는 객석점유율 93%라는 새로운 기록을 쌓아 올렸고, 이제는 뮤지컬 <시카고>를 대표하는 두 여배우로서 특별한 존재감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로써 뮤지컬 <시카고>는 892회 공연, 76만 여명의 한국 관객을 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1. **배우 프로필**

* **TERRA C. MACLEOD (벨마 켈리 役))**

몬트리올과 파리에서 공연된 <CHICAGO> 월드 프렌치 프리미어(Moliere Award 노미네이트)에서 벨마 켈리 역을 맡기 시작했다. 브로드웨이 공연에도 출연한 Terra는 <시카고> 20주년 기념 투어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연]**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전국투어, 인터내셔널 투어 – <Chicago (Velma Kelly역)>, <The

Addams Family (Morticia역)>, <Spamalot (Lady of the Lake역)>, <Blood Brothers (Mrs. J.역)>, <The Producers (Ulla역) >, <Kiss of the Spider Woman (Spider Woman역) >, <Cats (Bombalurina역)>, <The Pajama Game (Gladys역)>, <West Side Story (Anita역)>, <Guys and Dolls (Adelaide역) >, <Damn Yankees>, <A Chorus Line (Cassie역)>

**[영화/TV]** <The Lizzie Maguire Movie>, <The Reagans>, <The Dead Zone>, <Jeremiah>

* **DYLIS CROMAN (록시 하트 役)**

최근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록시 하트 역을 맡았으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CHICAGO>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공연]** 브로드웨이 & 전국투어 – <Chicago (Roxie Hart역)>, <In Your Arms>, <A Chorus Line (standby Cassie/Sheila역)>, <Movin’ Out (Brenda역)>, <Sweet Charity (Rosie역, Charity역 언더스터디)>, <Oklahoma!>, <Thou Shalt Not (Therese Raquin역 언더스터디)>, <Fosse >

**[TV]** <Guiding Light (Andrew Daniel역)>, NBC <Smash>와 다수의 국영 광고방송

* **ROZ RYAN (마마 모튼 役)**

18년 동안 역사적인 <시카고> 공연에 그 어떤 여주인공보다 많은 공연을 소화해 낸, 브로드웨이의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브로드웨이에서 <시카고>는 물론, 다른 7개의 프로덕션과 전국 투어에도 참여하였다. TV시리즈 출연의 경력도 있으며, 만화 더빙 작업 또한 셀 수 없다. 수 많은 영화와 TV광고에도 출연하였다.

**[공연]** <Chicago>, <Dream Girls>, <One Mo’ Time>, <Ain’t Misbehavin>, <Because of Winn Dixie-Alabama Shakespeark Festival>외 다수

**[TV]** <KC Undercover>, <Amen>, <Good News>, <The Rickey Smiley Show> 외 다수

**[만화 더빙]** <Adventure>, <Time>, <Hercules>, <Looney Tunes> 외 다수

**[광고]** <Charles Barkley’s Mom for Capital One> 외 다수

* **BRENT BARRETT (빌리 플린 役)**

**[공연]** <Chicago>, <Annie Get Your Gun>, <Dance a Little Closer>, <Grand Hotel>, <Candide>, <Brigadoon>, <West Side Story>, <Silence!-The Musical>, <Closer Than Ever>, <March of the Falsettos>,<Phantome – The Las Vegas Spectacular>, <Phantom of the Opera>,<Kiss Me Kate>, <Grand Hotel>, <Hook in Peter Pan>, <La Cage>

**[음반작업]** <The Alan Jay Lerner Album>, <The Kander & Ebb Album>, <Christmas Mornings> Brent는 솔로리스트로 전세계의 수 많은 명망 있는 심포니들과 공연 하였으며, The Broadway Tenors 공연을 기획하였고 The Four Phantoms와 함께 공연을 하였다.

**[영화]** <The Producers>, <Longtime Companion>, <Hercules>, <All My Children>

* **RON ORBACH (에이모스 하트 役**)

첫 전국 투어에서 ‘에이모스 하트’ 역할을 맡았다.

**[공연]** <Soul Doctor>, <Laughter On The 23rd Floor>, <Chicago>, <The God Committee>, <Hotel Suite (Roundabout)>, <Bottom in Midsummer Night’s Dream – Chicago Shakespeare Theater (2012 Jeff Nomination)>, <Tevye>, <Pseudolus>

**[TV]** <Medium>, <NUMB3RS>, <Without a Trace>, <Law & Order>, <Platypus Man>외 다수

**[영화]** <Clueless>

**[수상]** 1997 Jeff Award 수상

* **C. NEWCOMER** **(메리 션샤인 役)**

**[공연]** <Chicago>, <The Visit (OBC)>, <The Visit at Williamstown>

**[콘서트]** <Chita: Nowadays at Carnegie Hall>, <Mary Sometimes at Feinstein’s/54 Below>

**[오페라]** <Xerxes>, <A Midsummer……>, <Dido & Aeneus>

**[레코딩]** <The Visit>, <Volpone with Wolf Trap Opera (Grammy 후보)>

1. **시놉시스**

**“제가 죽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범죄자는 아니라구요!”**

재즈, 술, 욕망, 폭력, 범죄,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가능했던 1920년대 시카고. 거리엔 유흥과 환락이 넘쳐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낌 없는 냉혈한 살인자들로 만연하다.

시카고 쿡카운티 교도소에는 자극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지른 여 죄수들이 있다. 그 중 보드빌 배우였던 ‘벨마 켈리’는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을 살인하고,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 모튼’의 도움을 받아 언론의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도소 최고의 스타 여 죄수이다.

그러나 곧 정부인 ‘프레드 케이슬리’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코러스 걸 ‘록시 하트’가 벨마 켈리의 악명 높은 인기를 빼앗아간다. 또한, 뛰어난 언변술과 임기응변에 능한 돈을 쫓는 변호사 ‘빌리 플린’마저 그녀에게 빼앗겨 버린다.

혼자서는 유명세도 인기도 아무것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벨마 켈리는 록시 하트를 설득할 방법들을 모색하는데….